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

어찌, 알고 모름이 ‘도’이겠는가

조주 선사는 남전 스님 문하에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은 시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18세 전후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조주록> 첫 장에서는 “남전 스님과의 대화중에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에 깊은 뜻(玄旨)을 돈오(頓悟)했다”고만 기록했을 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 “평상심이 도이다.”
조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도 좋습니까?”
남전 “헤아린즉 어그러진다.”
조주 “헤아리지 않고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남전 “도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망각(妄覺)이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기(無記)이다. 만일 참으로 헤아림이 없는 도에 도달하면 마침내 허공과 같이 말끔하게 트인 것이다. 어찌 가히 무리하게 옳다 그르다 하겠느냐.”

조주 스님은 언해(言下)에 깊은 뜻(玄旨)을 깨닫고(頓悟) 마음이 마치 밝은 달과 같아졌다.

師問南泉 如何是道 泉云 平常心是道 師云 還可趣向不 泉云 擬即乖 師云 不擬爭知是道 泉云 道不屬不知知 知是妄覺 不知是無記 若真達不擬之道 猶如太虛 廓然蕩豁 豈可強是是非也 師於言下 頓悟玄旨 心如朗月.

평상심은 선악시비 분별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다. 선악시비로 마음이 들끓을 때는 평상심이 아니다. 아무 일이 없어 고요할 때가 평상심이다. 평상심은 평소 마음이다. 도는 원래 그렇게 사람에게 갖춰져 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헤아림이다. 도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 도는 알고 모름과도 전혀 상관없다. 알은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만 그렇게 아는 것일 뿐이다. 모름은 전혀 기억조차 없다. 그런데 어찌 알고 모름이 도이겠는가.

만일 마음이 헤아림이 없고 알고 모름에 유혹되지도 않는다면 그 자체가 큰 허공과 같아서 확연히 트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도를 행하고 있다. 다만 마음이 선악시비에 이끌려 갈 때는 도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도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이 더 이상 무엇을 찾지 않고 선악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혹되

고 안되고는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행복과 불행은 만드는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당신은 곧 돈오(頓悟)한 것이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그대 자신은 원래 부처이고 행복하다.

<조주록> 앞부분에는 조주와 남전 스님의 선문답이 나오므로 본 <조주록> 선해에서도 두 스님의 선문답을 먼저 소개하도록 한다.

남전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자, 조주 스님이 물었다.
조주 “밝음에 합합니까, 어둠에 합합니까?”
남전 스님은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조주 스님은 곧 법당을 나와서 말했다.
조주 “저 노스님이 나의 질문을 하나 받고 곧바로 할 말이 없었던 거야.”
수좌(首座)가 말했다.
수좌 “노스님께서 말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

그러나 조주 스님은 그마저도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말없이 돌아갔다 해도 결국 틀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저 노화상이 주장자 일방을 먹어야 할 당사자”라고 일성을 날렸다.

이 선문답은 2·3종의 그물이 쳐져 있어서 좀처럼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선문답을 보고 조주 스님의 최후 일성이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2종의 그물은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주의 주장자를 면할 것인가? 만일 이 남자에게 밝음과 어둠을 묻는다면 조주 스님에게 즉시 일방(一打)을 날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본 남자는 3종의 그물에 걸린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적도마를 타고 곧장 달려가 정봉에 깃발을 꽂겠는가?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불법을 아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남전 “산 밑 시주 집의 한 마리 소(牛)가 된다.”
조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전 “지난 밤 삼경에 달이 창을 비추고 있었어.”

師問南泉 知有底人 向什麼處去 泉云 山前槽越家 作一頭水牯牛去 師云 謝和尚指示 泉云 昨夜三更月到窗.

평상심은 선악시비 분별이 없는 고요한 마음 공부가 깊어질수록 수행자는 평범한 소처럼 산다

대 자신이 모를 뿐이다.”
조주 스님은 즉시 수좌를 때리고 말했다.
조주 “이 방망이는 당두(堂頭)인 저 노화상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南泉上堂 師問 明頭合暗頭合 泉便歸方丈 師便下堂云 這老和尚被我一問 直得無言可對 首座云 莫道和尚無語 自是上座不會 師便打 又云 這棒合是堂頭老漢喫.

밝음이 기쁨이라면 어둠은 근심이다. 밝음이 희망이라면 어둠은 절망이다. 밝음이 부처라면 어둠은 중생이다. 밝음이 부귀라면 어둠은 가난이다. 세상사는 이렇게 양쪽의 가치에 얽매어있다. 그런데 밝음과 어둠은 본래 없는 것이다. 밝음과 어둠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허망한 가치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양면에 유혹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당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밝음이라고 해야 할까, 어둠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대답이 될까? 도를 깨달은 선사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남전 스님은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지유저인(知有底人)을 직역하면 ‘있음을 아는 사람’인데, 도를 아는 사람, 불법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안다(知)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아는 것을 말한다. 즉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도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남전 스님은 “사람들의 소가 된다”고 말했다. 소는 주인을 위해 묵묵히 일한다. 밭을 갈고, 수레를 끌고 풀을 나른다. 소는 말이 없고 힘들어도 불평이 없다. 불평이 없고 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이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수행자는 한낱 평범한 소처럼 산다. 권위가 없고 형식이 없으며 따로 불교라는 테두리도 두지 않는다. 몇 명이나 도움을 받을지 생각하지도 않고 묵묵히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뿐이다.

지난 밤 삼경에 달이 창을 비추고 있었다는 말은 진작 자네의 그릇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뜻이다. 선사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바로 알아들으니, 자네 참 훌륭하구먼’ 하고 말하는 방식은 선가의 말이 아니다.

선(禪)은 절대 단정(斷定)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7

삼독심이 항하의 모래수 같으나

[원문]
又答阿僧祇問曰此則三毒心也 胡名 阿僧祇 漢言 不可數 此心中 有恒沙惡念 一一念中 皆有一劫恒沙者 不可數也 以三毒惡念 如恒沙故 言不可數也. 眞如之性 既被三毒之所覆 若不招彼恒沙惡念 云何解說 今者 能除貪瞋癡 即超過三大阿僧祇劫 末世衆生 鈍根 不解大覺 甚深妙義 三阿僧祇密之說 遂言歷此塵劫 方得成覺 末劫 豈不疑誤修行之人 退菩提之道也.

또 아승지가 무엇인지를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승지는 삼독의 마음입니다. 호나라에서는 ‘아승지’라 하지만 한나라 말로는 수를 셀 수가 없다는 말이니까, 이 마음 속에 항하의 모래수 같은 나쁜 생각이 있는데 하나 하나의 생각마다 모두 일 겁씩이 있는 나라. 항하의 모래라 하는 것은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인데, 삼독으로 생기는 나쁜 생각이 항하의 모래와 같으므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진여의 성품이 삼독에 덮였으니 항하의 모래수 같은 나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찌 해탈이라 하겠느냐. 지금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없앨 수 없으면 바로 삼대 아승지 겁을 뛰어넘게 된다.

말세의 중생들은 우둔해 여래의 깊고도 묘한 뜻인 세가지 아승지 겁의 비밀스런 말씀(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 말하기를, “무한히 긴 세월을 보내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겁(말세)에 수행인을 의심하게 하고 잘못 알게 해 보리의 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설]
‘아승지’란 한나라(중국)에서는 ‘셀 수 없는 수’를 말하지만 호나라(인도)에서는 삼독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탐·진·치 삼독에 의해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욕심을 끊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욕심이 끊어지면 마음은 편안해 집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게 되니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은 큰마음이기에 욕심을 부린다면 끝이 없습니다.

‘항하’는 겐지스 강입니다. 그 강의 모래알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1겁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마다 1겁 동안 윤회를 하게 됩니다. ‘항하의 모래수 같은 나쁜 생각’은 항하의 모래처럼 우리의 나쁜 생각이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것인데, 삼독으로 생기는 나쁜 생각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쓸 수 있고 해탈을 이루는 것이 진여의 자리인데 중생은 그 자리 삼독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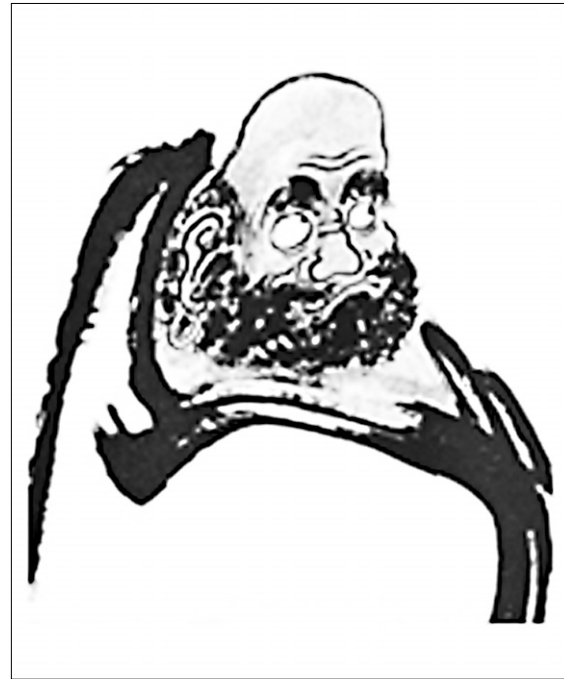
그래서 중생은 쉽게 윤회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해탈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삼계(색계·욕계·무색계)를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만 마음속에서 끌어내면 삼대 아승지 겁 즉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설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들 말합니다. 탐·진·치 삼독을 끌어내야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정진은 하지 않고 말로만 수행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탐·진·치 삼독은 말로써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하는 숨을 끊어 내야만 하는데 숨을 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정진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만으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비밀스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무한한 긴 세월을 보내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퇴보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며 수행인을 의심합니다.

이런 중생심은 모두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부처님의 비밀스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주를 하나로 보고 끊임 없는 정진을 이어간다면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과정 ◆

- 실기교육 : 흥은사 주지 성각스님
-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육, 시식 천수바라미, 오공양 작법무

※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 개강일 : 양, 3월 2일 화요일
-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 수강시간 : 오후 3시
- ◎ 범음대학 : 흥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 문의 및 접수처 : 흥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 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 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별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